

디지털 인문학과 한국 문화

김 현

hyeon@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1.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 코끼리

2. 디지털 인문학이란?

3.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 사례

4.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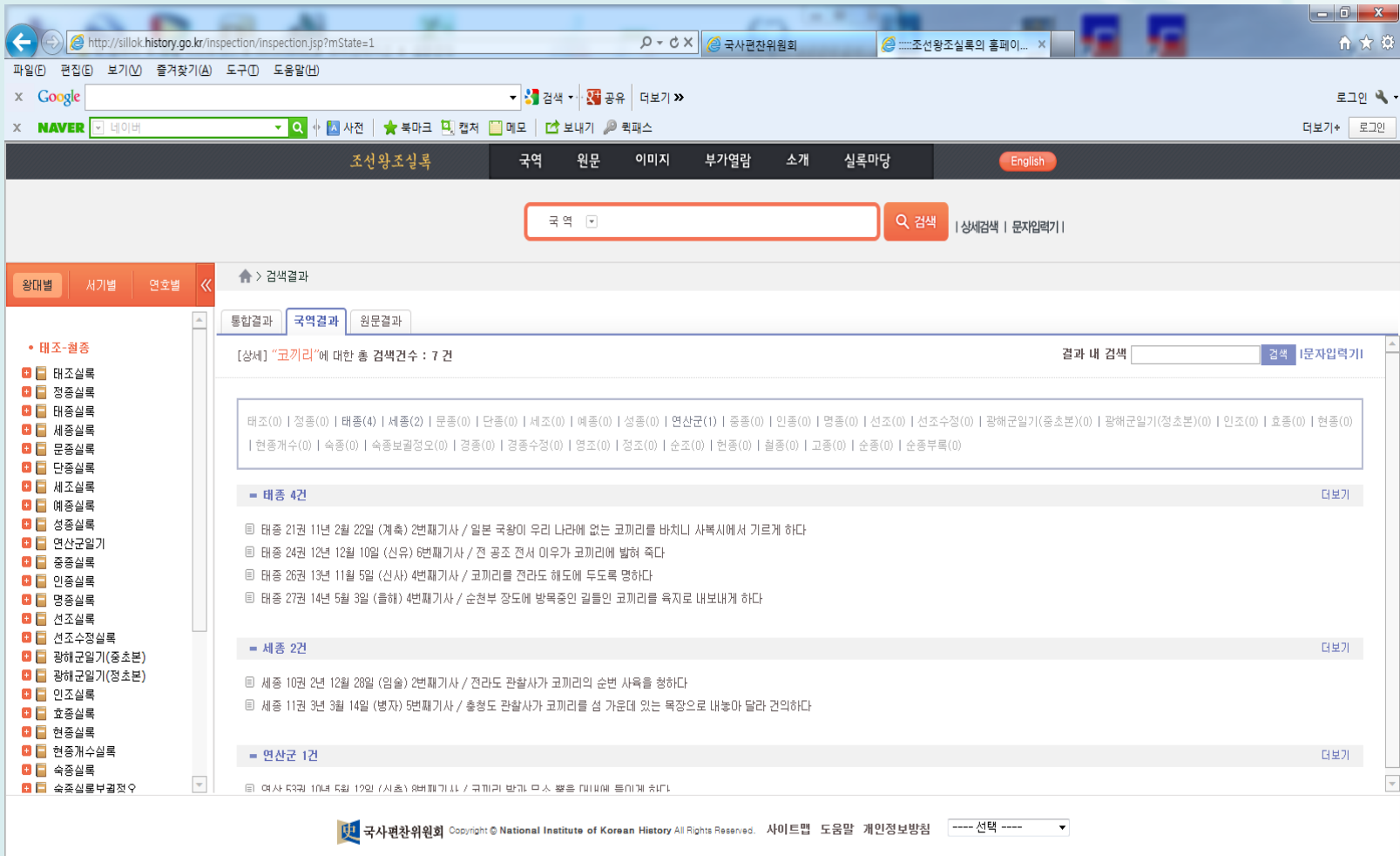
5.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교육

6.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활용

7. 디지털 인문학의 미래

1.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 코끼리

검색: '코끼리'



The screenshot shows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website. The browser address bar displays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ection.jsp?mState=1>. The page title is "조선왕조실록" (Joseon Wangjo Sillok). The search bar contains the text "코끼리" (elephant). The search results are displayed under the "국역결과" (National Translation Results) tab. The results show 7 items related to "코끼리".

국역 결과

통합결과 국역결과 원문결과

[상세] "코끼리"에 대한 총 검색건수 : 7 건

결과 내 검색

태조(0) | 정종(0) | 태종(4) | 세종(2) | 문종(0) | 단종(0) | 세조(0) | 예종(0) | 성종(0) | 연산군(1) | 중종(0) | 인종(0) | 명종(0) | 선조(0) | 선조수정(0) | 광해군일기(중초본)(0) | 광해군일기(정초본)(0) | 인조(0) | 효종(0) | 현종(0) | 현종개수(0) | 숙종(0) | 숙종보결정조(0) | 경종(0) | 경종수정(0) | 영조(0) | 정조(0) | 순조(0) | 현종(0) | 철종(0) | 고종(0) | 순종(0) | 순종부록(0)

태종 4건

- 태종 21권 11년 2월 22일 (계축) 2번째기사 / 일본 국왕이 우리 나라에 오는 코끼리를 바치니 사복시에서 기르게 하다
- 태종 24권 12년 12월 10일 (신유) 6번째기사 / 전 공조 전서 미우가 코끼리에 밟혀 죽다
- 태종 26권 13년 11월 5일 (신사) 4번째기사 / 코끼리를 건라도 해도에 두도록 명하다
- 태종 27권 14년 5월 3일 (을해) 4번째기사 / 순천부 장도에 방목중인 길들인 코끼리를 육지로 내보내게 하다

세종 2건

- 세종 10권 2년 12월 28일 (임술) 2번째기사 / 전라도 관찰사가 코끼리의 순번 사육을 청하다
- 세종 11권 3년 3월 14일 (병자) 5번째기사 / 충청도 관찰사가 코끼리를 섬 가운데 있는 목장으로 내놓아 달라 건의하다

연산군 1건

- 연산군 53권 10년 5월 12일 (사초) 8번째기사 / 코끼리 반기 무스 뿔을 대외에 물리게 하다

국사편찬위원회 Copyright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맵 도움말 개인정보방침

1.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 코끼리

검색: '코끼리'

The image displays three overlapping screenshots of the Sillok History website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ection.jsp?mState=1) showing search results for '코끼리' (elephant). The top screenshot shows the search bar with '코끼리' entered and the search button highlighted. The middle screenshot shows the search results for '코끼리', listing several entries from the Joseon Dynasty records. The bottom screenshot shows a detailed view of one of the search results, specifically the entry for '코끼리' (elephant) from the Joseon Dynasty records, mentioning the elephant's arrival in 1413 and its subsequent fate.

조선왕조실록

통합검색

국역 원문 이미지

태종 21권, 11년(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일본 국왕이 우리 나라에 없는 코끼리를 전라도 해도에 두도록 명하다

일본 국왕(日本國王) 원의지(源義隆)가 사(司)를 보내 우리 나라에 없는 코끼리를 전라도 해도에 두도록 명하다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10장 A면

【영인본】 1책 577면

【문류】 *외교-왜(倭) / *과학-생물(生物)

국사편찬위원회

태종 24권, 12년(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전 공조 전서 이우가 코끼리에 관한 공조 전서(工曹典書) 이우(李瑀)가 기이한 짐승이라 하여 명했다. 이우가 기이한 짐승이라 하여

【태백산사고본】 10책 24권 30장 A면

【영인본】 1책 657면

【문류】 *외교-왜(倭) / *과학-생물(生物)

국사편찬위원회

태종 26권, 13년(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11월 5일(신사) 4번째기사 코끼리를 전라도 해도에 두도록 명하다

코끼리[象]를 전라도의 해도(海島)에 두도록 명하였다. 병조 판서 유정현(柳廷顯)이 진언(進言)하였다.

“일본 나라에서 바친바, 길들이 코끼리[象]는 이미 성상의 완호(玩好)하는 물건도 아니요, 또한 나라에 이익도 없습니다. 두 사람을 다쳤는데, 만약 법으로 논한다면 사람을 죽인 것은 죽이는 것으로 마땅합니다. 또 일 년에 먹이는 꼴은 콩이 거의 수백석에 이르니, 청컨대, 주공(周公)이 코뿔소와 코끼리를 물아낸 고사(故事)를 본받아 전라도의 해도(海島)에 두소서.”

임금이 웃으면서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37장 A면

【영인본】 1책 694면

【문류】 *과학-생물(生物)

국사편찬위원회 Copyright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맵 도움말 개인정보방침

1.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 코끼리

검색: '코끼리'

The image displays three overlapping screenshots of the Sillok History website (http://sillok.history.go.kr) showing search results for '코끼리' (elephant). The top screenshot shows the search results for '코끼리' in the '국역' (National Edition) section, listing various historical records. The middle screenshot shows the search results for '코끼리' in the '원문' (Original Text) section, displaying the full text of a historical record. The bottom screenshot shows the search results for '코끼리' in the '이미지' (Image) section, displaying a list of images related to the search term.

Search Results (Top Screenshot):

- 태종 27년, 14년(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순천부 장도에 방목중인 길들인 코끼리
- 길들인 코끼리(象)를 육지(陸地)로 "길들인 코끼리를 순천부(順天府) 하니, 일금이 들고서 불쌍히 여겼던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29장 [영인본] 2책 15면 [문류] *농업-축산(畜産)

Search Results (Middle Screenshot):

- 세종 10년, 2년(1420 경자 / 명 영락(永樂) 18년) 전라도 관찰사가 코끼리의 순번
- 전라도 관찰사가 계하기를, "코끼리(象)란 것이 쓸 데에 유익도 내 백성들만 괴로움을 받게 되니, 하니, 상황이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20장 [영인본] 2책 419면 [문류] *과학-생물(生物) / *행정

Search Results (Bottom Screenshot):

- 세종 11년, 3년(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3월 14일(병자) 5번째기사 충청도 관찰사가 코끼리를 섬 가운데 있는 목장에 내놓아 달라 건의하다
- 충청도 관찰사가 계하기를, "공주(公州)에 코끼리를 기르는 종이 코끼리에 채여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나라에 유익한 것이 없고, 먹이는 꿀과 콩이 다른 짐승보다 열 갑절이나 되어, 하루에 쌀 2말, 콩 1말 씩이온즉, 1년에 소비되는 쌀이 48섬이며, 콩이 24섬입니다. 화를 내면 사람을 해치니,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되니, 바다 섬 가운데 있는 목장에 내놓으소서." 하였다. 선지(宣旨)하기를, "물과 풀이 좋은 곳을 가려서 이를 내어놓고, 병들어 죽지 말게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4장 A면 [영인본] 2책 426면

-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 500여년 동안 일어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분야의 사건과 그것에 대한 당대 지식인들의 논의를 상세하게 기록한 광범위한 지식 자원. 역사 연구 자료일 뿐 아니라 풍부한 창작 소재를 담고 있는 자원으로 인식되었으나 규모의 방대함으로 비전문가의 접근이 용이치 않았다.
- 『조선왕조실록』의 디지털화는 조선시대에 역사에 대한 지식을 소수의 전공자뿐 아니라, 가깝게는 인접 학문의 종사자에서부터 더 넓게는 작가, 언론인, 일반인까지 우리의 역사에 대한 지식 수요자들에게 폭넓게 제공하는 데 기여.
- “디지털 조선왕조실록”의 최대 수혜자는 교양 서적 저술가와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 연극 극작가 등.
- “디지털 조선왕조실록”의 학제적 성과는 '학술'과 '창작' 사이에 놓였던 '지식 소통의 장벽'을 해소한 것
- 이것을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 관계 종사자들이 학자들을 통한 '인적 매개' 없이 창작의 소재에 바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풍부한 소재를 자유롭게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게 되었다.

“e-실록은 역사학자의 실록 독점시대에 종지부를 찍었다.”
(조선일보, 2006. 1. 28)



1.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 코끼리

2. 디지털 인문학이란?

3.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 사례

4.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연구

5.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교육

6.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활용

7. 디지털 인문학의 미래

- 컴퓨터의 대중화가 시작된 30년 전부터 오늘까지 인문지식의 디지털화는 종이에 적힌 글자를 디지털 코드로 전환하는, 문자의 디지털화 위주로 진행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작지 않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었다. 문자 검색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변화는 사이버 환경의 특성에 충분히 적응한 모습으로 볼 수 없다. 인문지식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여 가치있는 문화콘텐츠가 되기 위한 노력이 '디지털 인문학'(디지털 한국학)이라는 이름으로 수행되고 있다.

❖ 디지털 인문학(Digital Humanities)이란?

- 정보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하는 인문학 연구와 교육, 그리고 이와 관계된 창조적인 저작 활동
- 전통적인 인문학의 주제를 계승하면서 연구 방법 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 그리고 예전에는 가능하지 않았지만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시도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성격의 인문학 연구를 포함
- 단순히 인문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자료를 디지털화 하거나, 연구 결과물을 디지털 형태로 간행하는 것보다는 정보 기술의 환경에서 보다 창조적인 인문학 활동을 전개하는 것
- 그리고 그것을 디지털 매체를 통해 소통시킴으로써 보다 혁신적으로 인문 지식의 재생산을 촉진하는 노력

(김현, 디지털 인문학: 인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상생 구도에 관한 구상, 『인문콘텐츠』 29, 2013. 6.)

❖ 디지털 인문학의 발전

- 디지털 인문학의 효시 - 로베르토 부사 (Roberto Busa, 1913-2011) 의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콘코던스
 - 로베르토 부사는 1949년부터 미국 IBM사의 도움을 받아 1천1백만 단어에 이르는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저작과 관련 자료를 컴퓨터의 힘을 빌어 정리하기 시작. 그 결과물은 1974년에 인쇄물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고, 1992년에는 하이퍼텍스트 기능을 포함한 디지털 텍스트가 CD-ROM 판으로 간행.
- 이를 계기로 인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에 눈을 뜨게 된 미국과 유럽의 인문학자들은 컴퓨터의 활용을 여러 방면으로 모색하기 시작
 - 초기에는 인문학 전산화(Humanities Computing), 또는 전산 인문학(Computational Humanities)이라는 이름으로, 텍스트 및 언어 자원의 색인·통계 처리 위주로 발전
 -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에드워드 와그너 교수의 조선시대 엘리트 연구 - 문과방목 전산화
- 정보 기술 환경의 급속한 진화와 더불어 그 활용 범위를 데이터베이스와 멀티미디어, 그리고 대규모 원시 데이터에서부터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미 있는 사실을 찾아내는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그 결과를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시각화(Visualization)로 확대

❖ 디지털 인문학의 임무

1. (연구) 연구 방법의 혁신을 통해 인문학 본연의 학술 연구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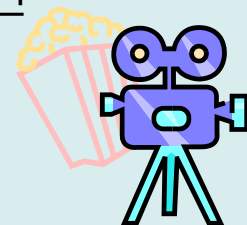
- 나무만 보는 연구 → 숲과 나무를 함께 보는 연구
- 혼자 하는 연구 → 공동으로 하는 연구 → 모든 개별적인 연구가 공동의 성과로 결집되는 연구



2. (교육) 우리의 차세대에게 디지털 문식(Digital Literacy)의 능력을 키워 줄 인문교육 콘텐츠와 교육 방법론 개발



3. (활용) 인문 지식이 학계의 벽을 넘어서서 대중과 소통하고 창조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 개방





1.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 코끼리

2. 디지털 인문학이란?

3.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 사례

4.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연구

5.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교육

6.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활용

7. 디지털 인문학의 미래

❖ London Lives

- 영국 셰필드 대학과 허트포드셔 대학 연구진이 연구, 편찬
- 1690년부터 1800년 사이에 영국 런던 거주민의 삶에 관계된 고문서 240,000 건 집적
- 교회 교구의 기록물을 비롯해 범죄와 재판에 관한 기록, 병원의 진료 기록과 검시 보고서, 상공인 조합의 기록, 빈민 구제에 관한 기록 등
 - 런던시의 8개 아카이브에 소장된 자료를 담은 15개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제작
- 이 데이터 속에는 포함된 3백35만 개의 인명을 대상으로 동일 인물들을 추적 → 18세기 런던의 하층민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재구성

London Lives 1690 to 1800 ~ Crime, Poverty and Social Policy in the Metropolis

[Home](#) | [Search](#) | [Browse](#) | [Lives](#) | [Historical Background](#) | [Wiki](#) | [The Project](#)



[Home](#)

[Search](#)

[Browse Documents](#)

[Lives](#)

[Historical Background](#)

[Login / Register](#)

[User Wiki](#)

[About This Project](#)

[Copyright & Citation Guide](#)

[Contact Us](#)

Sources for London Lives

A fully searchable edition of **240,000 manuscripts** from **eight archives** and **fifteen datasets**, giving access to **3.35 million names**.

To search London Lives use the boxes on the right or go to the [Search Pages](#).

April 2012 Update

Changes implemented during the April 2012 update of this website (version 1.1) include making **keyword searching** the default form of search. For further information, see [What's New \(April 2012\)](#).

Register to Use London Lives

Although anyone can search **London Lives**, [registration](#) allows you to use a [personal workspace](#) to link documents together and create biographies of eighteenth-century Londoners. It also gives you access to advanced search facilities and the [Wiki](#). Registering is free. For example biographies, see the **Featured Life** on this page and the [Lives](#) pages.

London Life in the Eighteenth Century

What was it like to live in the first million person city in modern Western Europe? Crime, poverty, and illness; apprenticeship, work, politics and money; how people voted, lived and died; all this and more can be found in these documents. For more information see the [Historical Background](#)

SEARCH

Keyword

Reference ID

From 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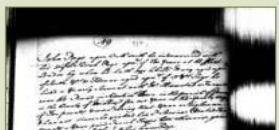
SEARCH

[More Search Options](#)

Featured Life

[John Page fl. 1742-1757](#)

"Honest" Labouring Man?



London Lives can also be searched in:

connectedhistories

Integrated search of major electronic sources in British history, 1500-1900

LOCATING LONDON'S PAST

Map digital resources about

London Lives, 1690-1800: <http://www.londonlives.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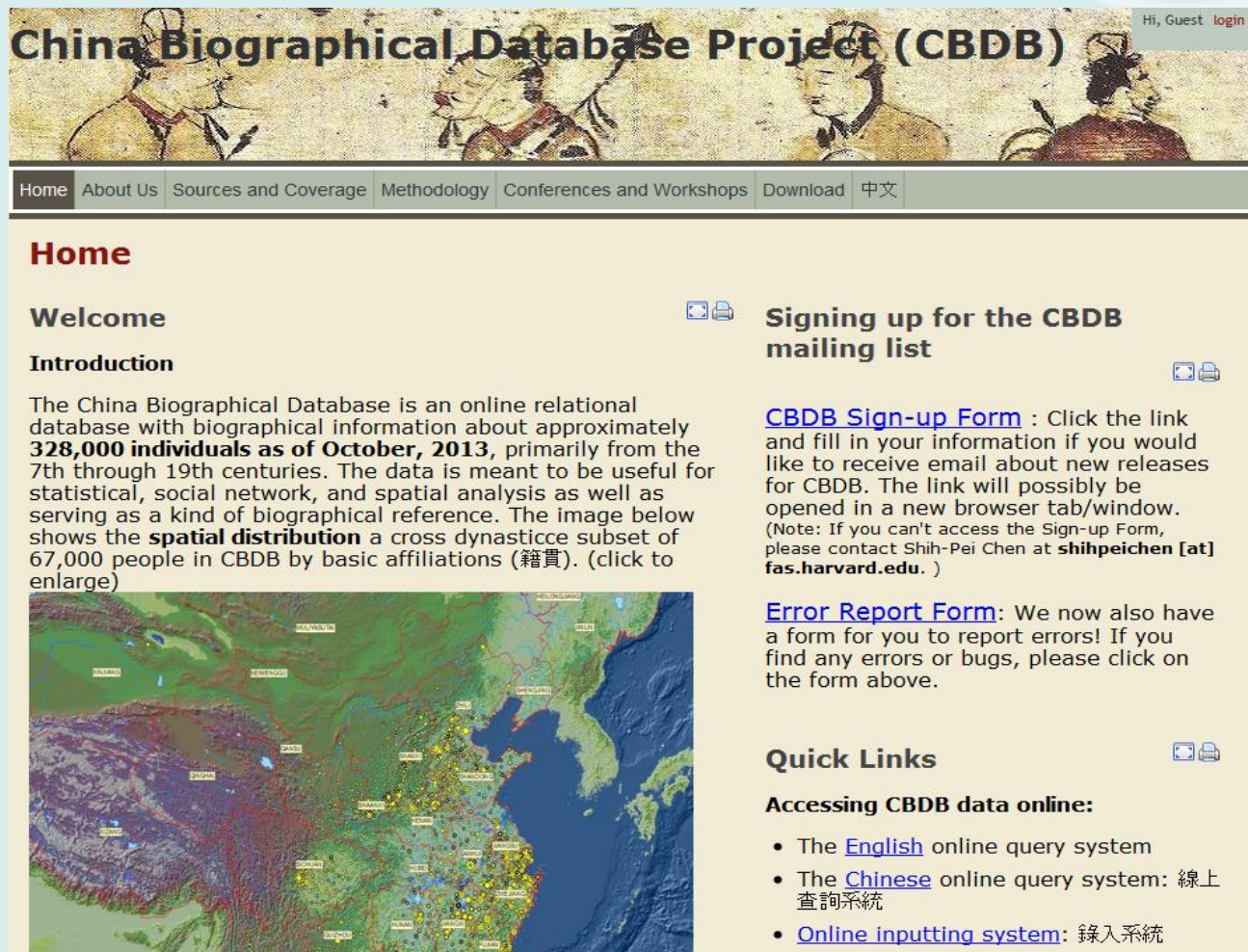
❖ London Lives [예시]

John Conway는 1775년 6월 7일 St Clement Danes 교구회에 맡겨졌다. 교구 기록에는 그의 나이가 3년 6개월이고, 글을 읽고 주기도문을 읽 수 있다고 적혔다. 간호사 Hill이 주급 2 실링 6 펜스를 받고 그를 보육하였다. 1778년 John은 가난한 소년들에게 일거리와 숙식을 제공하는 구빈원(救貧院)으로 옮겨진다. (이 때 그의 나이는 2 살이 늘어난 8살로 기록된다.) 그는 이곳에서 걸레에 쓰는 실을 짜는 일을 했다. 교구의 도제 등록부에 의하면, John은 1783년 8월 30일 Essex 지방의 Barking에 사는 어부 Morris Jones의 도제(徒弟)로 보내진다. 이 때 만들어진 고용계약서에는 7주 후에 마스터인 Morris Jones가 2 파운드를 받고, 3년간의 고용 기간이 만료되면 2 파운드 2 실링을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John은 3년 동안 일한 후에 옷 한 벌을 받기로 하였다. 1785년 4월 18일에 John은 다시 St Clement Danes 구빈원의 명부에 올랐다. 하지만 4월 22일에 열린 입원 자격 심사에서 그가 도제 생활을 한 지 9달 만에 도망쳤던 사실이 드러나 입원이 거부되었고, 다음날 그는 Barking으로 추방되었다. 1786년 3월 15일, John은 14살이라고 나이를 속이고 다시 구빈원에 들어오려고 했지만, 이번에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3월 17일, 존은 다시 Barking으로 돌려보내졌다.

<http://www.londonlives.org/static/ConwayJohn1775-1786.jsp>

❖ China Biographical Database (CBDB, 中國歷代人物傳記資料庫)

- 미국 하버드 대학과 중국 北京大學이 공동으로 편찬하고 있는 중국역대 인물 데이터베이스
- 7세기~19세기의 인물 **328,000** 명에 관한 정보를 수록
- 인물과 인물의 연관 관계에 대해 500여 종의 관계성을 정의하고 이를 데이터에 적용



China Biographical Database Project (CBDB)

Hi, Guest [login](#)

[Home](#) [About Us](#) [Sources and Coverage](#) [Methodology](#) [Conferences and Workshops](#) [Download](#) [中文](#)

Home

Welcome

Introduction

The China Biographical Database is an online relational database with biographical information about approximately **328,000 individuals as of October, 2013**, primarily from the 7th through 19th centuries. The data is meant to be useful for statistical, social network, and spatial analysis as well as serving as a kind of biographical reference. The image below shows the **spatial distribution** a cross dynastic subset of 67,000 people in CBDB by basic affiliations (籍貫). (click to enlarge)



Signing up for the CBDB mailing list

[CBDB Sign-up Form](#) : Click the link and fill in your information if you would like to receive email about new releases for CBDB. The link will possibly be opened in a new browser tab/window. (Note: If you can't access the Sign-up Form, please contact Shih-Pei Chen at [shihpeichen \[at\] fas.harvard.edu](mailto:shihpeichen@fas.harvard.edu).)

[Error Report Form](#): We now also have a form for you to report errors! If you find any errors or bugs, please click on the form above.

Quick Links

Accessing CBDB data on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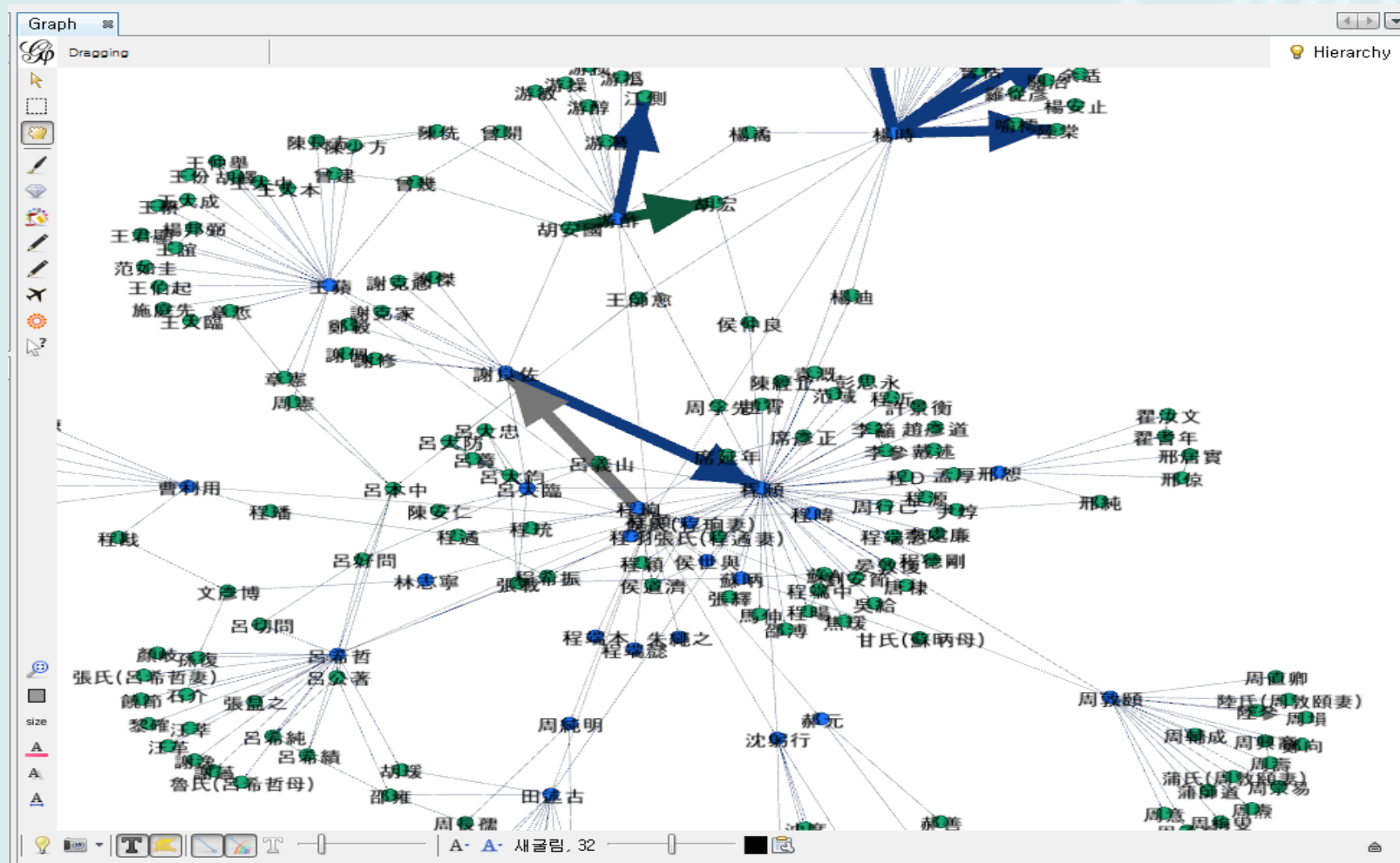
- The [English](#) online query system
- The [Chinese](#) online query system: 線上查詢系統
- [Online inputting system](#): 錄入系統

CBDB: China Biographical Database Project,
<http://isites.harvard.edu/icb/icb.do?keyword=k16229>

❖ CBDB의 인물간 관계성 정의

4	Patron of (= Client was)	是Y的恩主
5	Patron was (= Client of)	恩主是Y
7	Coalition member of	黨羽為Y
8	Coalition leader of	黨魁為Y
9	Friend of	友
10	Friend in the same graduating class	同年友
11	Impeached	彈劾
12	Impeached by	被Y彈劾
13	Recommended	推薦
14	Recommended by	被Y推薦
15	Opposed or attacked	反對/攻訐
16	Opposed by or attacked by	遭到Y的反對/攻訐
.....		
578	preface to family biography written by	家傳序由Y所作
579	wrote preface to family biography of	為Y之家傳作序
580	inscription for writings of	為Y之書題詞
581	writings inscribed by	書之題詞由Y所作
582	gave military support to/surrendered to	軍事支持Y
583	was supported militarily/surrendered to by	受Y之軍事支持
584	opposed militarily	軍事對抗Y
585	was opposed militarily by	被Y軍事對抗Y

❖ CBDB 데이터로 구현한 인물 관계망





1.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 코끼리

2. 디지털 인문학이란?

3.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 사례

4.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연구

5.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교육

6.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활용

7. 디지털 인문학의 미래

❖ 인문정보 시맨틱웹(Humanities Semantic Web)

- 시맨틱 웹은 데이터가 생산될 때 유관한 자료의 의미적 연관 관계를 약속된 방식으로 명시함으로써 보다 지능적인 데이터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
 - 현실세계에서는 지역과 조직, 그리고 전공이라는 벽 때문에 지식과 정보가 조각 조각 나눌 수밖에 없었지만, 디지털 세계에서는 그 벽을 넘어서서 나누인 조각들을 모을 수 있다. 또 그것을 한 가지 기준이 아니라, 관심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문맥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 인문정보 시맨틱웹은 현실 세계의 다양한 영역에서 만들어진 인문지식의 조각들을 그것의 관계성까지 고려한 디지털 텍스트로 전환하여 가상 세계에 옮겨 놓는 것.
- 그렇게 함으로써 의미있는 지식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형태로 모여지고 쓰여질 수 있게 하는 것.

❖ 지식 연계 방법: Semantic We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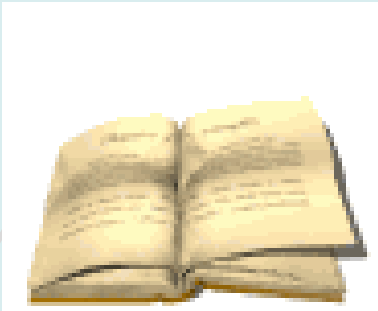
■ 고립된 지식 객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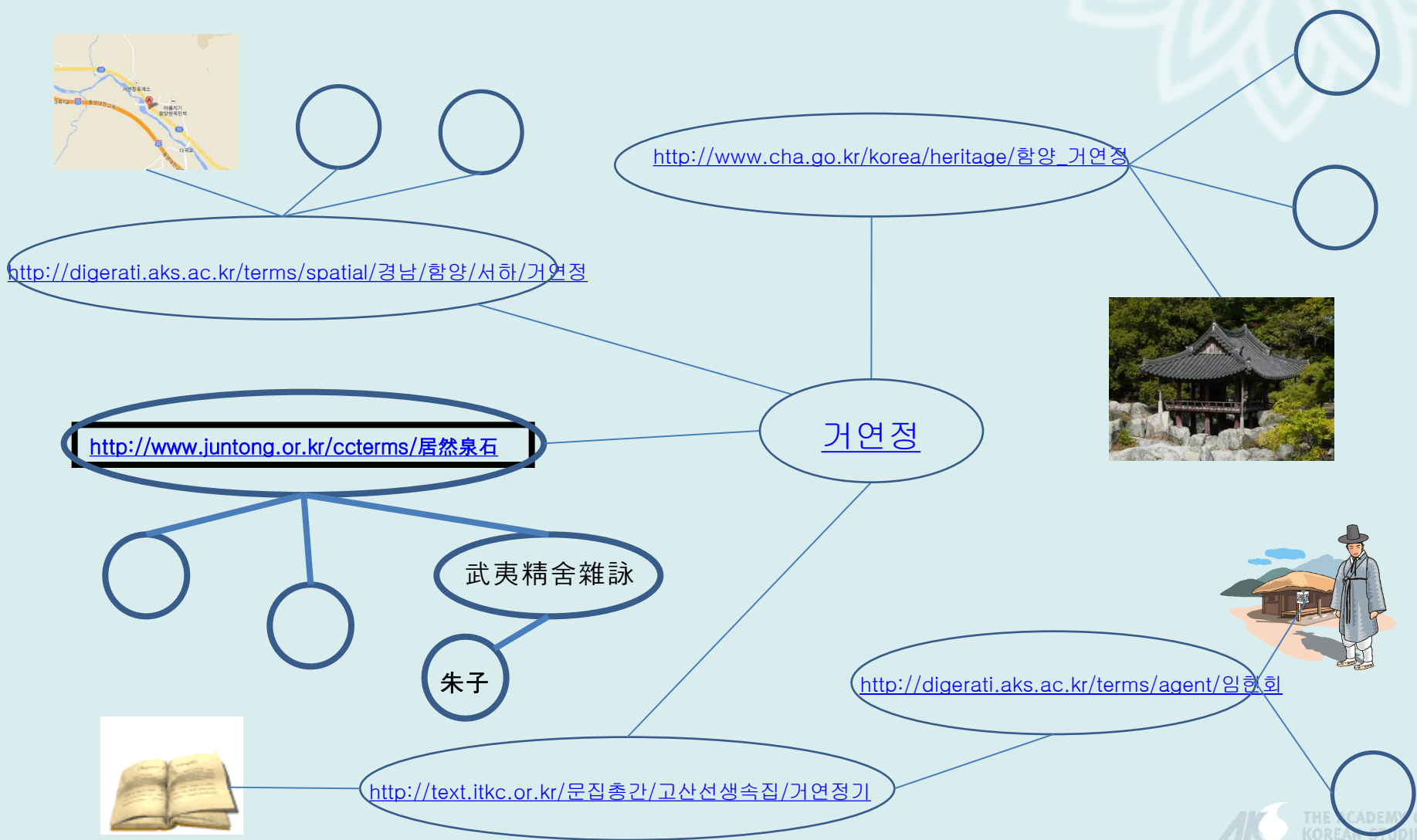
함양 거연정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에 있는 누정.
거연정(居然亭)이라는 이름은 주자(朱子)의 셋구 "거연아천석(居然我泉石)"에서 취한 것이다.

.....
1874년에 임헌회(任憲晦)가 쓴 거연정기(居然亭記)의 편액이 걸려 있다.



❖ Semantic Web 환경에서 지식 연계망 구현



❖ 시각적 인문학(Visual Humanities)

- 인문지식을 전달하는 텍스트가 문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시각적인 미디어를 통해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 인문지식은 수천 년 동안 '글'이라는 이름의 문자 중심 텍스트의 형식으로 기록·전승
 -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 유통의 무대가 되면서, 책 속의 글과는 다른 모습의 텍스트가 요구되기 시작
 - 디지털 정보 시대의 인문지식 수요를 겨냥한 시각적 인문학은 전통적인 문자 텍스트와 뉴미디어 상의 시각적 자료가 적정한 문맥으로 엮여져서 감성적인 멀티미디어 텍스트로 재탄생하는 것을 지향.
- ☞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술이 물리적인 형상의 가상화에 머물지 않고, 인문학적 연구가 찾아낸 무형의 지식이 그 안에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구

❖ Visualization of Data: 새로운 지식의 발견



❖ Visual Storytelling: 인문지식의 새로운 표현 방법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

【간략정보】

- 한자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
- 분야 예술/미술/서예
- 유형 유적
- 시대 고대/삼국
- 성격 탑비
- 건립시기/연도 924년(경매왕 1)
- 크기(높이, 길이, 폭, 둘레) 높이 273cm | 너비 164cm | 두께 23cm
- 소재지 경상북도 문경시 가문읍 원북리
- 소유자 봉암사
- 관리자 봉암사
- 문화재 지정번호 보물 제138호
- 문화재 지정일 1963년 1월 21일
- 집필자 김세호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

智證和尚碑銘 並序 a_001_186d

序曰。五常 仁義禮智信 分位。配勳方 東是萬物
始生之方。故曰勳方。者曰仁。三教 儒佛老 立
名。現淨域者曰佛。仁心則佛。佛目能
仁。則 音測。法也。也。導郁夷 東方 柔順性
源。達迦衛 慈悲教海。寔猶石投水
雨聚沙然。 言易也。矧東諸侯之外守者。
莫我大也。而地靈既好生爲本。風俗亦
交讓爲先。熙熙 和樂之貌 太平之春。隱隱

지증 화상 비명병서 【智證和尚碑銘 並序】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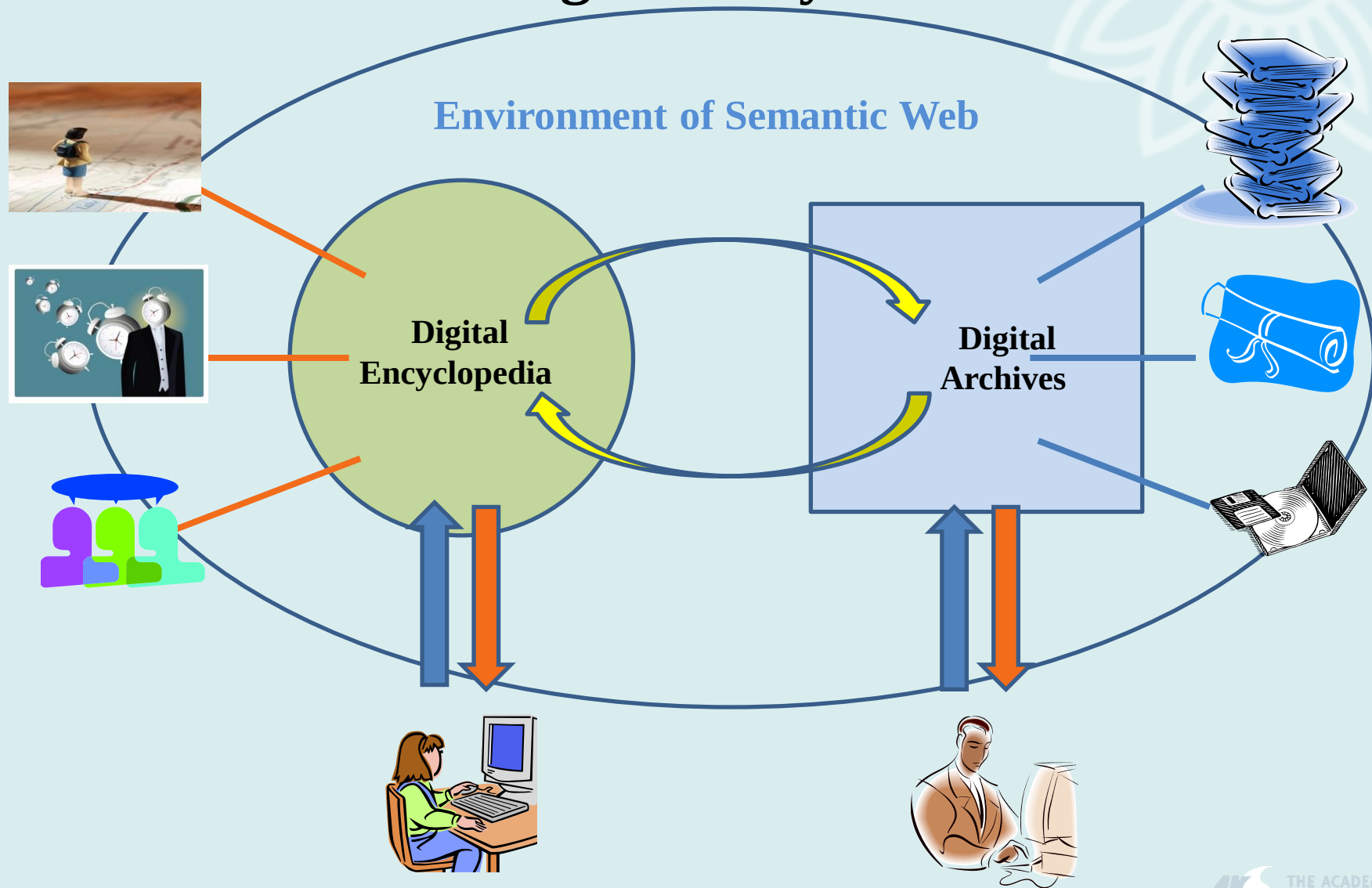
오상(五常)의 방위를 나눌 때 동방(勳方)에 배속된
것을 인(仁)이라고 한다. 삼교(三敎)의 이름을 세울
때 정역(淨域)에 출현한 것을 불(佛)이라고 한다. 인
심(仁心)은 불(佛)이요, 불목(佛目)은 인(仁)인 것도
필연적인 일이다. 옥이(郁夷)의 유순한 성원(性源)을
이끌어 가원(迦衛)의 자비로운 교해(敎海)에 이르게
하는 것은 돌을 물에 던지고 (石投水) 모래 더미 위
에 물을 뿌려 주는 것 (雨聚沙) 과 같은 일이다. 더
군다나 동방의 제후로서 외방을 지키는 자로 무리보
다 크 나가가 있으며 지령(地靈)이 이미 삼리기 좋아

❖ Encyves [Encyclopedic Archives in Digital Environment]

- 지식 정보 네트워크와 아카이브 관리 시스템의 융합 모델에 관한 구상
- 인문지식의 '원천 자료'이자 그 지식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증거'인 '실물 자료'(기록물, 유물 등) 데이터가 광대한 인문지식 네트워크의 노드(node)로 존재하는 세계
- '자료'와 '해석', 거기에서 파생된 다양한 부산물이 의미의 연결고리를 좇아 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 인문지식 시맨틱 웹으로 확장되는 디지털 아카이브

Digital Encyves



❖ 디지털 시대의 백과사전

- 아날로그 시대에 백과사전은 대중들이 분야별 전문지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의 역할을 담당
- 디지털 시대에는 인터넷 상에 구현된 월드 와이드 웹이 종래의 '백과사전'의 역할을 대신
- 종래의 백과사전은 매체의 제약으로 인해 '개설적인 안내' 기능을 넘어서기 어려웠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 '보다 전문적인 지식' → '그 지식의 근거가 되는 원천 자료'로의 연계가 가능
- 또한 다양한 전공영역에서 만들어진 지식의 조각들이 의미의 관계망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형태로 모여지고 쓰여질 수 있게 하는 학제적 소통의 수단

❖ 디지털 시대의 아카이브

- 기록관, 박물관 등 '실물'을 소장하는 아카이브의 일차적인 임무는 의미있는 실물 자료의 수집과 보존
- 오늘날에는 그 실물 자료의 '활용성'을 증대시키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
- 아카이브의 '실물 자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 세상 사람들의 다양한 관심사에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밝히는 **노력** 필요.

👉 아카이브의 실물 자료 하나 하나가 인류, 국가, 지역, 조직의 문화를 이해하는 문맥(context) 속에서 하나의 노드(node)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일



1.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 코끼리

2. 디지털 인문학이란?

3.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 사례

4.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연구

5.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교육

6.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활용

7. 디지털 인문학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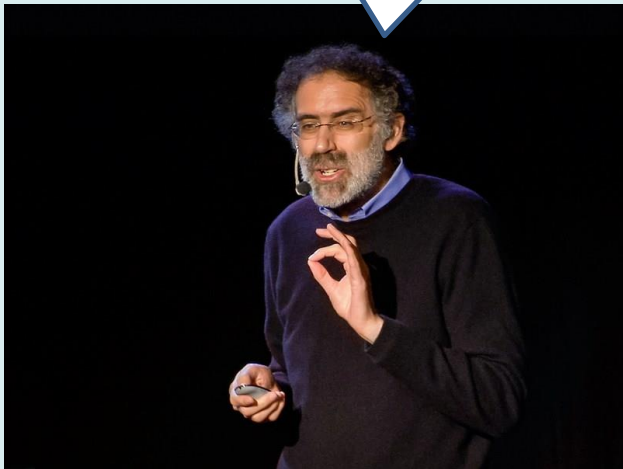
❖ 교육부, 국가전략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실시 발표

- 2014년 7월 23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등 관계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판교 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전략'을 발표.
 - ※ 미래창조과학부는 SW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 교육부는 '초·중등 SW교육 활성화방안'을, 산업부는 '제조업의 SW융합 및 활용전략'을, 문화체육관광부는 'SW저작권 보호·이용기반 확산방안'을 발표.
- 소프트웨어 교육을 정규 독립 교과로 정해 초·중학교에서 필수과목으로 교육.
 - ※ 중학생은 2015년부터, 초등학생은 2017년부터 의무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하고 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현재 심화선택과목에서 일반선택과목으로 분류해 교육 기회를 확대

👉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사 양성 문제 대두

Let's teach kids to code

사람들은 대부분 “디지털세대”(Digital Natives)로 불리는 요즘 젊은이들이 첨단기술을 이용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용어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물론 이 젊은 세대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문자, 게임, 채팅 등을 하는 것이 익숙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능숙”(fluent)하다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새로운 기술을 다루는데 아주 많은 경험이 있고 익숙해져 있지만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것이나 새로운 기술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마치 읽을 수는 있지만 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Mitch Resnick: Let's teach kids to code

❖ 소프트웨어 교육과 인문 교육

-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적은 '컴퓨터 활용 능력 배양' 또는 '직업적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육성'이 아니다.
- 많은 것이 디지털에 의존하게 될 내일에, 우리의 차세대가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하며 사회와 소통할 수 있게 하려는 것.
- '읽는' 것만이 '문식(文識)'이 아니다. '쓸' 수 있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우리의 차세대가 '디지털 문맹(文盲)'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
- 아무리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르쳐도, 그것이 다른 교과와 관계를 갖지 못하는 '나홀로 과목'이 되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배운 방법으로 역사 시간에 디지털 역사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교사가 그것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1.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 코끼리

2. 디지털 인문학이란?

3.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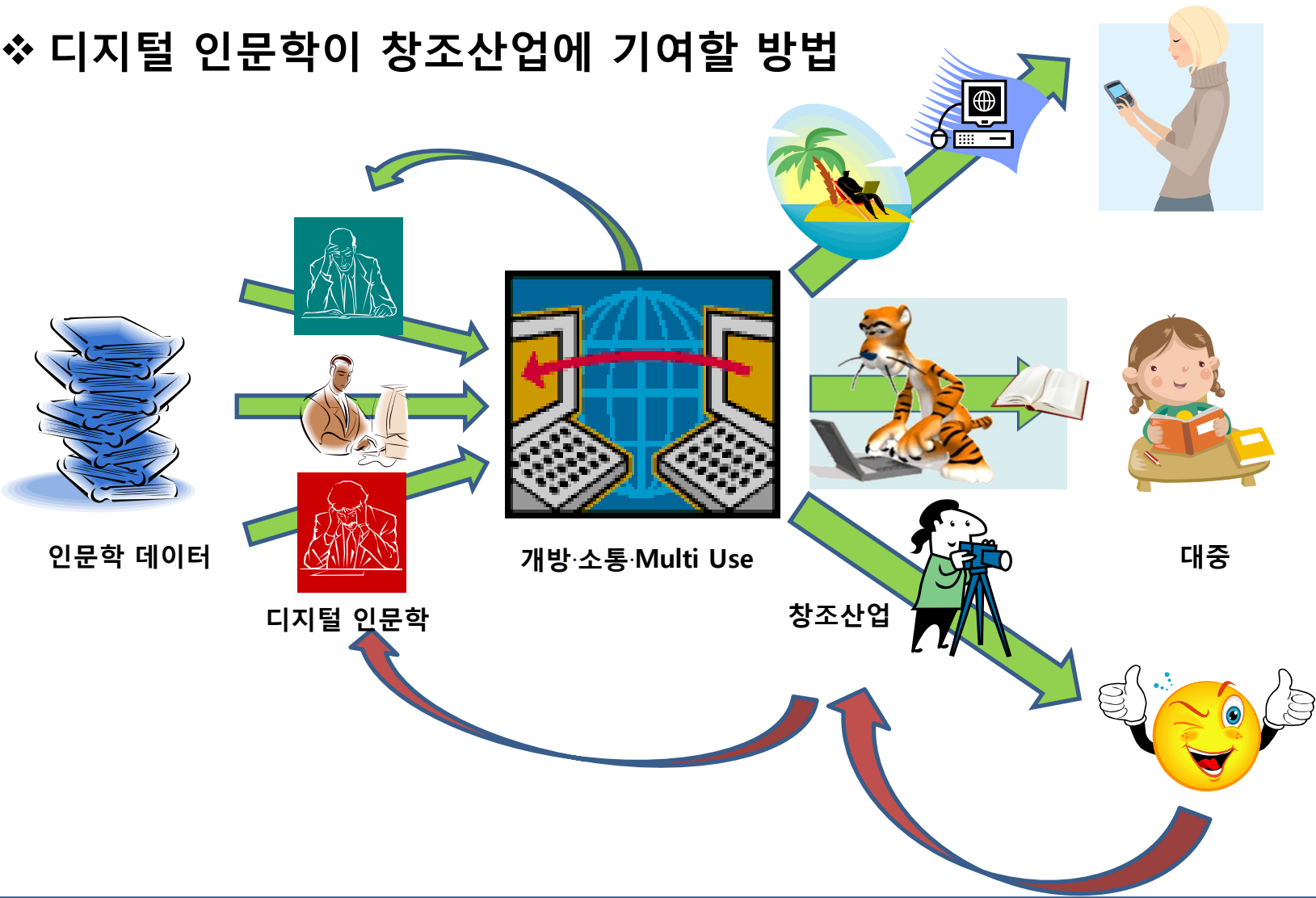
4.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연구

5.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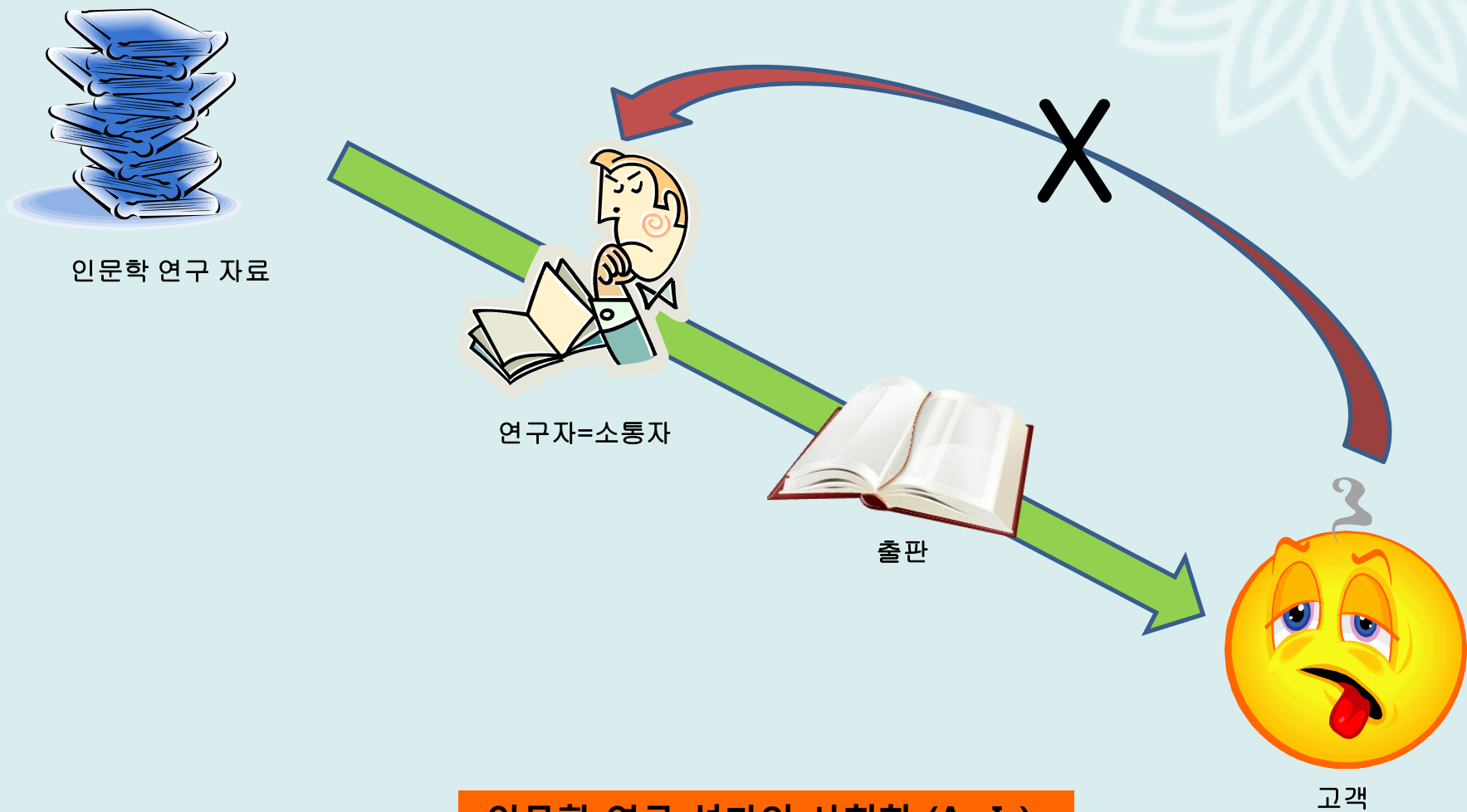
6.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활용

7. 디지털 인문학의 미래

❖ 디지털 인문학이 창조산업에 기여할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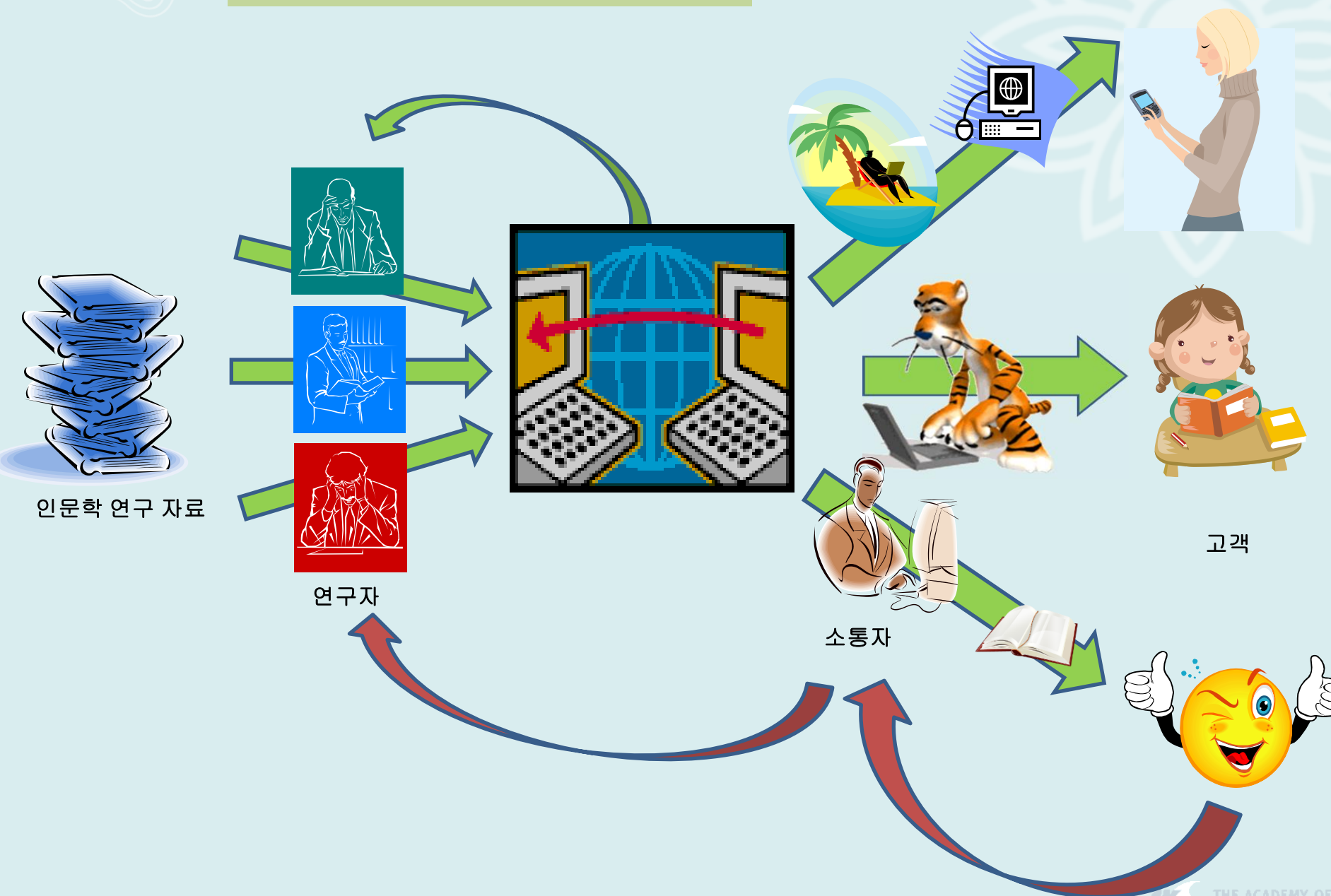
인문학 연구 성과의 사회화(As Is)



인문학 연구 성과의 사회화 (As 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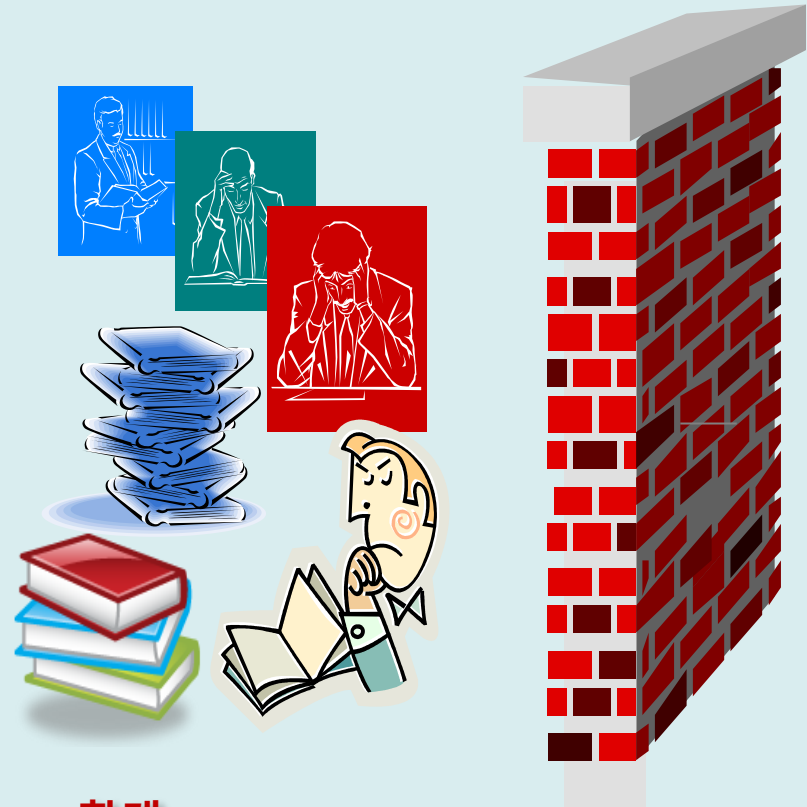
6.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활용

인문학 연구성과의 사회화(To Be)



❖ 학계와 문화산업계 - 지식 소통의 과제

- 인문지리- 시장의 입지
- 경제사- 물가, 화폐
- 사회사- 상인의 신분
- 국어학- 중세국어
- 연희사- 광대의 공연
- 음식사- 매식 문화
- 복식사- 신분별 차이, 시대별 변천



학계

조선시대의 시장(市場)...

시장의 구조, 매장 모습,
상인 복장, 물건의 종류,
물건 값은 얼마??
흥정하는 말, 시장의 음식,
구경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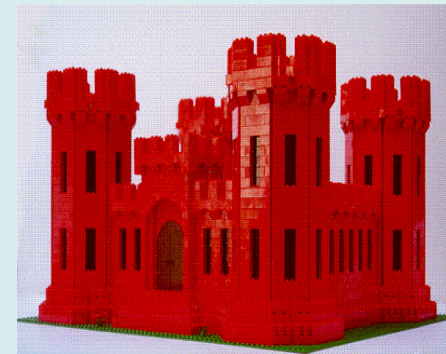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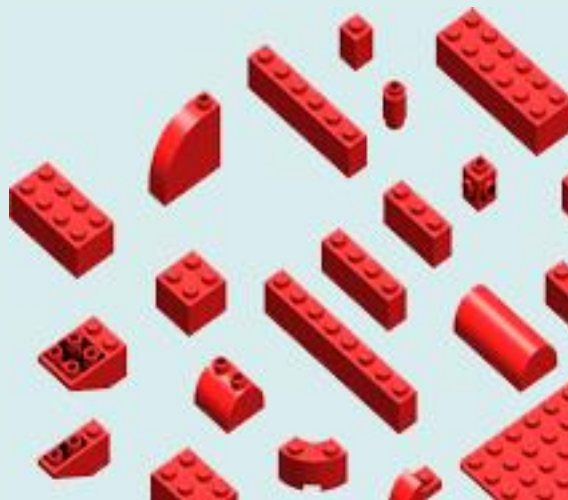


문화산업계

❖ 인문학과 문화산업의 가교 역할



❖ 지식의 부품화와 창조적 재생산





1.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 코끼리

2. 디지털 인문학이란?

3.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 사례

4.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연구

5.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교육

6.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활용

7. 디지털 인문학의 미래

-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판매하는 서점도, 세계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백화점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식을 담고 있는 백과사전도 예전에 그것들이 있었던 실재 세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사이버 공간으로 이주해 간 것이다. 현재로서는 현실 세계의 일부분이, 그러나 미래에는 좀 더 많은 부분이 그곳으로 옮겨갈 것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인류가 수천년의 역사 속에서 만들고 쌓아온 유산들을 인류 문명의 새로운 거주 공간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수많은 방주들이 건조되고, 짐을 싣고, 닻을 올리고 있다.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 지식의 사이버 이주를 위한 방주를 띄우는 일이다.
- 사이버 세계는 단순히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전환된 세계가 아니다.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했던 일이 그곳에서 가능해지기도 하고, 현실 세계에서 지배적이었던 논리가 그곳에서는 아예 의미 없게 되기도 한다. 이주하려는 곳의 환경이 기존에 살던 곳과 전혀 다르다면, 그 다른 점을 수용하고, 새로운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문 지식을 사이버 세계로 이주시키는 디지털 인문학의 과업은 인문 지식이 그곳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일이다.

(김현, 인문정보학, <http://www.xuanflute.com> > Diary > 인문정보학)

❖ 디지털 인문학 = 현대의 인문학

“디지털 인문학은 모든 인문학이 새롭게 갈아입어야 할 옷과 같은 것이다. 디지털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인문학은 더 이상 현대의 학문이라고 할 수 없다. 적어도 우리의 다음 세대의 인문학자들은 모두 디지털 인문학자일 것이다.” (김현, 디지털 인문학: 인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상생 구도에 관한 구상, 『인문콘텐츠』 29, 2013. 6.)

❖ 우리가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려는 일

디지털로 표현하고 디지털로 소통하는 이 시대에 인문지식이 더욱 의미 있게 탐구되고 가치있게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

